



15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보고

제104회기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김재철
서 기 조승호

1. 조직

- 위원장 : 김재철
- 회 계 : 나판열
- 서 기 : 조승호
- 위 원 : 김유식, 정병갑

2. 회의

1) 제1차 회의

- ☞ 일 시 : 2019. 11. 15(금)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위원장 : 김재철 목사, 서기 : 조승호 목사, 회계 : 나판열 장로, 위원 : 김유식 목사, 정병갑 목사
- ② 경과보고
제103회기 위원회 활동상황을 위원장 김재철 목사가 보고하고 경청하여 향후 사역 방향을 숙고하다.
- ③ 전문위원 위촉의 건은 임원에게 맡겨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다.
- ④ 총신 동문 여성 사역자들을 위원장과 서기가 개인적으로 만나 면담키로 하다.

2) 제2차 회의

- ☞ 일 시 : 2020. 2. 12(수)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문위원 위촉건은 신학부에서 여성안수연구원으로 총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대신대학교의 교수를 위촉하였고 미래정책위원회와도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따로 위촉하지 않기로 하다.
- ② 총신 동문 여성 사역자 4명을 면담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다.
가. 2020년 제57회 목사장로기도회에 여성사역자를 위한 특별강의를 총회 임원회에 의뢰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나. 제57회 목사장로기도회 책자에 제103회 여성사역자 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삽지로 넣기로 총회 임원회에 허락 받기로 하다.
- ③ 차기 회의는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에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20. 4. 21(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57회 목사장로기도회 특별강의 요청을 위해 총회 임원회에 공문발송하기로 하다.(개포동교회 이풍인 목사를 강사로 추천하기로 하다.)
- ② 여성군선교사 건은 신학부와 검토 후 연구가 필요하므로 차후 논의하기로 하다.
- ③ “사역개발”내용을 여동문회에서 제57회 목사장로기도회시 발표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 ④ 여성사역자 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워크숍을 2020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 7월 1일(수)에 대전 라온컨벤션에서 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20. 7. 14(화) 15: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여성사역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다.
가. 여성사역자들의 강도권 허락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경청하다.
나. 여성사역자들의 강도권에 대한 허락이 되어질시 주어지는 지위향상과 사역의 확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다.
- ② 제105회 총회에서 여성사역자들에게 강도권 허락을 청원하기로 하다.
- ③ 제105회 총회에서 여성사역자들을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를 청원하기로 하다.
- ④ 차기회의는 2020년 7월 30일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20. 7. 24(금) 11: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서기 조승호 목사가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③ 제105회 총회에 아래와 같이 청원하기로 하다.
가. 여성사역자들에게 강도권 허락을 청원하기로 하다.
나. 강도권 허락에 대한 청원이 불허할시 대체방안으로 여성사역자 지위향상을 위하여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한해 일정한 자격고시를 치른 후 “교육사” 호칭을 부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다. 여성사역자들과 여성도들을 위한 여성상설위원회 설치를 청원하기로 하다.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최종 보고

1. 제104회 총회 수임사항

여성사역자 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80~690쪽)대로 받고, 한 회기 연장 청원은 허락하기로 하되, 여성사역자 관리 및 강도권 허락에 대한 청원사항은(보고서 691쪽) 더 연구하도록 가결하다.

2. 최종 결론

총신신대원 졸업한 여성 사역자들에게 강도권 허락 시 교회와 교단에서의 활동 방안

1. 여성 사역자의 지위가 향상된다.

여성 사역자들이 강도사가 되면 노회에 소속된 정식 사역자로 안정된 신분을 얻게 된다. 또한 교회에서도 강도사로서 전도사보다 좀 더 인정받는 지위를 갖게 된다. 현재 여성 사역자의 경우 신학교를 나오거나 신대원을 나와도 모두 전도사로 동일한 신분으로 사역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여전도사의 학벌과 실력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신학교도 제대로 못나온 실력이 없고 문제만 일으키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대원에서 제대로 공부한 여성 사역자들이 강도사가 되어 전문적인 목회 사역자로 자리 잡게 되면 전반적으로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인식도 향상되고 지위도 향상될 수 있다.

2. 여성 사역자를 함부로 대하는 교회 문화가 개선될 것이다.

여성 사역자의 지위가 향상되면 남성 사역자들이 여성 사역자들에게 함부로 반말하고 막 대하는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교회에서 여성 사역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남성 목회자들이 여성 사역자들을 나이나 학교 선후배 등 외적 요소들과 상관없이 하대하고 막말하는 비인격적인 처우이다. 이런 일로 유능한 여성 사역자들이 교회 사역을 그만두거나 다른 교단으로 빠져나가는 일도 많다. 하지만 여성 사역자들이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면 목사의 사역의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성 사역자를 함부로 대하는 비인격적인 교회문화가 개선 될 것이다.

또한 여성 사역자를 남성 사역자의 보조자가 아니라 남성 사역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됨으로서 여성 사역자들의 능력을 교회의 성장을 위해 좀 더 활용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여성에 대해 좀 더 평등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여성 사역자들이 강도사로서 교회에서 전문적인 사역자의 지위를 갖고 남성 사역자들과 동등하게 설교하게 되면 교회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평등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남성 사역자는 여성 사역자를 사역을 위한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여성 사역자에 대한 존중은 교회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여성 사역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여성 사역자에 대한 존중은 결국 여성에 대한 존중과 평등한 관점으로 확대되어 나간다.

여성 사역자들이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성의 관점도 있고 그것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여성 사역자들이 여성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서 여성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여성 리더가 공동체에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들의 역할이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됨으로서 평등한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교회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좋은 문화를 가진 곳이라는 인식을 주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결국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

4. 여성 사역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 할 수 있다.

임시 신분인 전도사의 경우는 자신의 은사에 적합한 전문적인 사역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 강도사로 교단의 정식 사역자의 지위를 갖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자신의 은사에 맞는 전문적인 사역을 개발하고 사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교회는 다양한 전문적인 사역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담과 교육 등은 여성 사역자들이 매우 잘 감당할 수 있는 분야이고 절대적으로 여성 사역자들의 활동이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여성 성도에 대한 상담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상담, 육아 문제, 복잡한 가정 문제에 대한 상담은 남성 목회자가 심도 있게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현재는 사모나 여전도사가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사모는 사역자가 아니고 여전도사는 교육의 정도와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능력이 천차만별이며 무엇보다 영적 권위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성 사역자들의 존재가 교회 현장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5. 여성 성도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은 결국 교회의 성숙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젊은 여성들이 떠나가는 것은 여성 성도들의 영적 욕구와 필요를 충족 시켜줄 사역자들의 부재도 한 몫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 권위를 가진 훈련된 여성 전문 사역자들이 여성 성도들과 가정과 육아 문제 등을 남성 중심적이고 유교적인 관점이 아닌 성경적이고 평등하고 여성적 관점에서 상담하고 양육한다면 교회는 다시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교회가 여성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며 여성을 인정하는 곳이라고 생각될 때 여성들이 교회에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교회 분위기와 문화를 만드는데 여성 사역자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6. 여성 사역자들이 특수 사역지에서 일할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교회 안 밖의 모든 분야에 특수 사역할 곳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교단에서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 일터 사역, 학원 선교, 다문화 가정 돌봄, 탈북민 선교, 군과 경찰 등의 선교 등 다양한 사역지에서 전문 사역자로 일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분야에는 여성들이 함께 해야 할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라는 신분으로는 이런 사역에 리더십을 가지고 참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교단에서 강도사의 지위를 얻게 되면 이런 사역에 참여할 기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역에 참여하고 지경을 넓혀가기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남성 목회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범죄에 대한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교단은 남성 목회자들의 성차별적 발언과 성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선 남성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일할 여성 사역자들의 부재가 하나의 원인이 된다. 즉, 남성 목회자들의 생각과 관점과 관습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성 사역자들의 성적 문제나 성차별적 발언 등에 대해 파트너십을 가진 여성 사역자들이 조언하고 비판하고 견제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8. 교단의 건강성을 대 사회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남녀는 평등하고 남녀는 동등하게 모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배운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성 사역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를 차별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현대 사회의 여성 인권 감수성이 낮은 곳으로 여기게 된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결국은 복음의 본질인 생명과 은혜와 자유를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러므로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은 합동 교단이 건전한 여성관과 평등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할 것이다.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제목 :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여성사역자들에게 강도권 허락을 청원합니다.
2. 강도권 허락에 대한 청원이 불허할시 대체방안으로 여성사역자 지위향상을 위하여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한해 일정한 자격고시를 치른 후 “교육사” 호칭을 부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여성사역자 및 여성도들을 위한 여성상설위원회 설치를 청원합니다.

2020년 9월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서기 조승호